

교  
가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 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 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자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본부 5개 分委 加 동

동창회 조직강화와 각 동기회·국내외 지역회·직능회 등 활성화 촉진, 용마기족 유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본부동창회 5개 분과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鄭昭永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趙大濟·7회·협성개발 사장) 첫 회의를 통해 9월 중에 5개 위원회를 차례로 개최, 동창회 각종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옛 조방앞 동원초밥에서 열린 총무분과위원회 첫 회의에는 鄭본부회장을 비롯해 趙위원장 및 김대우(29회·회장·태화미린 대

표) 권종수(31회·직전회장·벼룩 시장 대표) 윤성국위원(33회·회장·대웅관광여행사 대표), 본부사무국 崔得鏞 국장(11회) 金炳秀 총무(22회) 등이 참석했다. 김학현(15회·본부부회장·세운기업 대표) 강창수위원(21회·본부부회장·대경마린 대표) 등은 업무관계로 불참했다.

회의를 주재한 趙위원장은 총무위원회의 실천방안으로 △본부사무국의 합리적 운영지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대외의 섭외활동을 통한 구심점 확립 △각종 자료의 조직적 정리 및 정보화 △불우용마기족돕기운동 계획안 마련 △포

**총무위 첫 회의 개최  
「저비용 고효율」회무 지향**

**편집·사업委 11일 열어**

**재정·체육·기획委  
이달중 상견례 갖기로**

상관리 등을 적극 추진, 동문·가족간 공동체의식을 드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 위원들도 특히 「젊은 동창회」를 지향해 후배들의 동창회 참여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崔得鏞 본부사무국장은 朴同烈 본부부회장(8회·해운대성심 병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편집·사업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11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재정·체육·연구분과위원회도 잇따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부 감사 4명 선임**

정소영 본부회장은 지난달 10일 姜鎮平동문(10회·전 감사) 등 4명을 본부 감사로 선임했다.

△姜鎮平(10회·부광산업 사장)

△韓炳祚(13회·부일합동법무사 대표)

△金元泰(18회·김원태회계사무소 세무사)

△朴哲秉(23회·산동회계법인 부산본부장)

등  
댓  
불

**콩 심은 데 콩난다**



제8회  
언론인·전 부산일보 전무이사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땅을 굳히는 소나기였다. 청룡기 폐권과 더불어 올해 고교 메이저 2관왕은 야구명문의 부활을 예고해 주기 때문이다. 명문은 바로 전통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전통은 거제 공짜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 3  
풀든 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 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答山日報社  
在站地點: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국빌딩 504호  
T: (02) 783-0071~2 F: (02) 783-0073

# 봉황대기 28년만에 쟁취

**모교, 97~98년 4관왕...「전통의 명문」 확인**

모교(경남고)가 숙원의 초록 봉황대기를 28년만에 처음 품에 안아 용마가족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전통의 명문」을 과시했다. 모교는 이로써 지난 6월 청룡기대회에 이어 올 시즌 2관왕에 올라 명실상부 「전국 최강자」가 됐다.

모교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30분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폐막된 제2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한국일

보주최)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경기고를 7대1로 격파, 첫 폐권의 영광을 쟁취했다.

모교는 이날 선발 송승준이 9이닝 동안 삼진 17개를 빼앗는 초특급 피칭과 위력의 13안타를 작렬시킨 타선으로 상대의 공수를 철저히 봉쇄했다.

모교는 1회초 수비에서 선발 송승준이 경기고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

로 기를 죽임으로써 사기가 충천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교는 1회말 공격부터 가공스런 해방망이를 가동시켰다. 「미완의 대물」 김진욱이 천금의 3점 홈런을 날려 결승점을 뽑았다. 적진 교란이 극심한 틈을 노려 4회 신민기 김태완이 적시타로 기습했고 다시 김진욱이 연타석 홈런 등을 작렬시켜 꿈에도 그리던 봉황대기를 품에 안았다.



“꿈에 그리던  
초록 봉황대기  
풀에 있다”

모교 선수단이 8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폐막된 봉황대기대회에서 우승기를 받고 있다.

# 본부 용마장학회 짐증투자 “결실”

**재경동창회 선수에 특식(75만원 상당)·손부홍동문(15회) 격려금 50만원**

이번 봉황대기 우승은 본부동창회의 용마장학회(이사장 金根俊 본부고문·1회)가 지난해 1월 발족한 이래 모교야구의 중흥을 위해 꾸준히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이다.

본부동창회는 그간 모교야구부의 선수기량 향상과 용구확충, 시설보강 등에 진력해 오던 중 동창회발전기금

조성운동을 전개해 전국의 동문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재경동창회는 봉황대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단을 위해 75만원 상당의 저녁 특식을 제공했고, 부산의 손부홍동문(15회·전 본부이사·손부홍정형외과의원장)은 격려금 50만원을 협찬했다.

# 통신 우승 23·준우승 21차례

**52년간 6대 메이저 “전국최고”**

모교는 이번에 봉황대기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6월 청룡기대회 우승과 함께 올 시즌 2관왕을 쟁취했다. 같은 시즌 2관왕의 영광을 누린 것은 모두 4차례. 47년 제2회 청룡기대회와 제1회 황금사자기대회, 48년 제3회 청룡기대회와 제2회 황금사자기대회, 49년 1회 화랑대기와 3회 황금사자기대회 등. 47~49년 연속 3회 시즌 2관왕의 금자탑을 세웠다.

모교는 46년 제1회 청룡기대회 준우승을 시작으로 이번 봉황대기 우승에 이르기까지 52년 동안 6개 메이저를 통해 통산 우승 23회, 준우승 21회라는 위업을 세워 단연 전국고교 중 으뜸의 자리에 우뚝 서 있다.

모교의 역대 대회별 우승·준우승을 살펴보면 ▲대통령배 준우승 4회 ▲청룡기 우승 6회·준우승 4회 ▲화랑대기 우승 6회·준우승 7회 ▲봉황대기 우승 1회·준우승 1회 ▲황금사자

기 우승 6회·준우승 6회 ▲전국체전 우승 4회 등이다.

**우승경인자 김진욱  
MVP·홈런·타점 3관왕**

이날 2년생 포수 김진욱은 최우수 선수(MVP)상을 비롯해 홈런상·타점상을 받아 3관왕이 됐다. 김군은 이번 대회에서 아마야구 연속 경기 홈런기록(6개임) 타이를 이루며 8홈런·19타점을 올렸다. 개인상을 받은 모교 선수·임원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투수상=송승준(3년·투수) ▲미기상=신민기(3년·투수) ▲수훈상=강민영(2년·투수) ▲타점상=김진욱 19개 ▲홈런상=김진욱 8개 ▲감독상=정연희 ▲지도상=조정문(야구부장) ▲공로상=김봉길 교장.

## 시평

뒤승승한 세상에, 난데없이 처음 들어보는 뭐 게릴라성 기습 집중폭 우라나. 막심한 수재까지 전국을 덮친 꿈꾸고 암담하던 이번 여름 막판을 모교 야구팀 때문에 무척 후련하게 넘겨버릴 수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유쾌했다. 한국일보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28년만에 첫 우승을 차지 했기 때문이다.

광주고에 5대0으로 이긴 준결승전에서는 상대방에 무려 13개의 볼넷을 주었다. 안타 하나 없이 볼넷 13개만 갖고서도 최소 3점에서 10점까지 득점할 수도 있는 계산인데, 영봉을 시켜버렸다. 또 경기고를 7대1로 꺾은 결승전에서는 삼진아웃을 17개나 빼앗고도 딱 훔런 한 방을 맞고서 영봉을 놓쳐버렸다.

이것이 묘한 야구의 산술이다. 야구는 참 재미있다. 더구나 내 모교의 야구를 평생 지켜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들을 바꾸어 가면서 겪어 왔었다. 재학생때와 졸업 후 약 십년간 그러니까 내 나이 설흔쯤까지는 반드시 시합마다 이겨야 하고, 우승을 해야만 했다. 그때에는 오로지 이기는 것만이 나의 진리였다. 모교 야구팀이 어느 한 시합에서 진 것을 가지



김성호  
제11회  
도서출판 集賢社 대표

한 시합에서 지는 걸 가지고 너무 가슴아파할 것 없다. 다음 시합이 또 계속 있으니까. 한동안 이러고 있는데, 계속 패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응원가면 진다. 아예 가지 말아야 이길지 모른다」하고 한동안은 거들떠보지도 안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리 모두가 서로 승리의 행거래를 쳤다.

이제 행거래쳤으니까 야구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다.

내 일생 실전경험에 의하면 「최강의 전력」은 전투에서 작전상 오류를 빚기 쉽다는 것이다. 최강일 때 자만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강 보다는 약 65% 강의 전력을 때가 오히려 작전계획이 용이하고 전투 전과를 크게 기울 수 있다.

한 시대 승승장구하던 우리 동문들이 영광과 오욕을 함께 뒤집어쓰고 있는 일도 영광 그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강일 때 자만에 빠지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늘 조심하고, 영광을 누릴 때에는 그 영광 다음을 생각해 보고 그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다음을 한 번이라도 미리 생각해 보았다면 어찌 오욕을 선택한단 말인가? 행거래치고 내려와서 어지럽다고 쓰러져서는 그 우승도 빛바랜다. 행거래치고 내려설 때는 당당히 근사하게 작지 할 일이다.

**柳興洙(11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柳興洙동문(11회·국회의원)은 8월 17일 단행된 제15대 국회의원 후반기 원구성에서 한나라당 봄인 통일·외교통상 위원장에 발탁됐다.

서울대 재학중 고시행정과(14회)에 합격한 이래 경찰총수까지 지낸 경찰관료 출신으로 12대 때 민정당 공천을 받아 원내에 진출한 3선 정치인이다.

부산경찰청장 치안본부장 충남지사 청와대 정무2수석 교통부차관 등을 역임했다.

**河一民(12회)**

국민회의 금정을 위원장



河一民동문(12회·부산대 철학과 교수)은 6·4지방 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해 낙선한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본격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河동문은 지난달 20일 오후 6시 부산 금정구 부곡동 골든 웨딩 플라자에서 열린 국민회의 금정을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돼 지역정치·정당정치의 개혁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河동문은 『정부여당의 세력 구심점에서 걸고 있는 지역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河동문은 정당활동을 하면서 교수직은 정년퇴임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金淇春(12회)**

고향 거제서 「후원의 밤」



金淇春동문(12회·국회의원)은 7월 15일 오후 5시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다래부 폐에서 「국회의원 김기춘 후원의 밤」을 주재했다. 김동문 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후보로 거제에서 출마, 당선돼 원내에 진출했다.

이날 모임에는 거제지역 동창회 조규태회장(13회·거제중 교장)과 김장우 직전회장(12회·거제상의 사무국장)을 비롯해 수많은 용마기족과 지역 유지, 각계 친지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김동문은 대통령 법률비서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 및 대구 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겸찰총장 법무부장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金泰佑(27회)**

부산서 변호사 개업



金泰佑동문(27회)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고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9월 10일 부산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김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10기)을 수료한 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계와 인연을 맺고 부산·울산 등지 판사, 대법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사무실: 부산 서구 부용동 1가 66-1(소부지원 옆 영남빌딩)  
\*전화: (051)242-9908~9

## 행거래를 친 다음에는

고 내 전부가 망한 것 같아 낙심하고, 잠 못이룬 밤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나의 한 시절은 그랬었는데, 실은 모교가 몇 년 만에 한 번 정도 우승해 줄까말까였고, 1차전 정도는 통과하지만 16강전 8강전에서는 툭하면 떨어졌다. 부산에선에서 조차 떨어져서 못 올라온다 더라는 소식도 곧잘 들렸다. 내 팀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는 모교 역사상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소문이 봄부터 들렸다. 동대문야구장의 모교팀 시합을 놓치지 않고 다 갔었다. 지난 45년 동안 내가 보아온 모교 야구부 중에서 정말 최강팀이다. 그 짜릿짜릿하던 내 청년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열렬히 응원했다. 모교 야구부만이 우승한 것이 아니라 재학생 전부는 물론 동문 선수들 모두가, 나도 우승했다. 우

## 미주 한인상공인 총연합회장 선임

### 김상호

(6회·전 LA 한인상의회장)

『미주 45개 지역 한인상공인의 권익신장과 전미(全美) 용마기족의 유대증진 및 자궁심 고취에 협력하겠습니다』

5월 31일 미주한인상공인단체 총연합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김相浩동문(6회)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LA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미주 내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김동문은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LA 다운타운 세라톤 그랜드호텔에서 각 지역 상공인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주 상공인 총연 제15차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협동으로 한인 우수작품 LA전시장 공동 개설 △미주상공인 총연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등 주요 사업들을 확정했다.

김동문은 특히 지난 해 9월 11일부터 3일간 서울 소

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던 세계 한인 상공인대회에 참석, 축하연 설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상공인의 역량 결집을 강조, 국내외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김동문은 이 대회를 전후해 서울·부산을 오가며 수많은 친구와 친지 등을 만나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60년대에 미국 LA에 이민했던 김동문은 유통업 등을 창업시켜 미주 한인 상공계에서 「성공한 기업인 베스트 10」에 랭크됐다.

## 「한국의 차세대 50인」에 뽑혀

### 오거돈

(21회·부산시 개발추진단장)

부산광역시 개발사업추진단장인 吳巨敦동문(21회)은 2000년대를 이끌어갈 「한국의 차세대 50인」에 선정됐다.

「한국의 차세대 50인」은 한국일보가 전국 50들을 맞아 각계 저명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19~50 세로서, 앞으로 10년 내에 「대물」이 될 수 있는 인물, 소속분야에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물, 주목 대상이 되는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김동문은 △부산의 2000년대를 설계하는 토박이공무원으로 △동아시아의 중심향만으로 도약하지 않고는 국



제 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는 신념에 기득차 있어 △가덕도 부산신항개발, 부산정보단지 조성, 영상산업 단

지를 포함한 부산테크노파크사업

추진과 외자유치 활동 전개 등으로

부산을 21세기 첨단해양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트로 손꼽히고 있다.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통창력 있는 전문관료가 되겠다』는 김동문은 서울대 철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행시(14회)에 합격해 부산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출발한 이래 내무부 주요간부를 거쳐 청와대 행정비서관, 재무담당관 및 내무국장을 역임했다.

☆개업축하소연: 9월 11일(금) 오후 5시부터

### 황수길

(17회)

#### 부산금정세무서장에

黃秀吉동문(17회)은 해운대세무서장 재임 중 최근 금정세무서장으로 전보됐다.

김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24회)에 합격한 이래 동미산 및 북부산세무서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장, 밀양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 기금조성 등 현안논의 제20회 사무실서 월례회

제20회 동기회는 8월 23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팔성관광 4층 동기회 사무실에서 8월 월례회를 열었다.

김대원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울산·충무 등지의 동문들도 참석하는 등 모두 40여명의 동문이 20평 남짓한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김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각

종 행사 추진현황 동문들 근황, 동기회발전기금 조성, 사무실 운영, 본부 동기회 새 집행부 현황 등을 설명한 후 張炳翰직전회장(국제신문 총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동문들은 저녁식사를 겸한 소주 파티를 벌인 가운데 밤 11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 본부에 바둑판 2세트 제22회서 기증

제22회동기회(회장 강성봉)는 최근 본부동기회 사무국에 동문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바둑판 2세트를 기증했다.

#### 바로 잡습니다

회보 제301호(98.8.1) 2면 「허연숙(23회) 유헌준장 전급 동기회 축하회 개최」제하의 朴基旭동기회장은 「본부부회장」으로, 5면 「마산·창원지역동기회」제하의 광고중 이사 조영국(7회)은 「조영주」로 바로 잡습니다.

### 朴榮武(15회)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영진



朴榮武동문(15회)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임 중 최근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으로 영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동문은 부산 및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오정일(16회)

재풀란드 대사 발탁

吳正一동문(16회)은 8월 28일 주풀란드대사로 발탁됐다.

연세대 정회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외무고시(1회)에 합격, 외무부에서 외교관 수업을 시작한 이래 주가나대사와 주요르단 대사, 본부 국제영사국장, 부산시 국제관계자문대사, 외교안보 연구원 서아시아·아프리카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 裴在昱(17회)

변호사로 새 출발



裴在昱동문(17회·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은 9월 1일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동문은 사법연수원(5기)과 미국 미시간 대 법과대학원(81년~82년)을 거쳐 서울·대구·울산지검, 경주지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사, 거창지청장, 대검공보관, 대검 중수부 4과장,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다.

논리적이고 과묵한 김동문은 일선검찰과 청와대 근무중 바쁜 가운데에서도 용마기족의 법률자문 및 예로사항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처리해 주어 신망이 두텁다.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3호 <검찰청 정문 앞>  
\*연락처  
전화(02)3482-0077(대표)  
FAX(02) 3482-0080

**黃性珍(19회)**

서울고검 검사 발탁

**李迎雨(27회)**

대검 중수부 2과장 영전

**金仁鎬(28회)**

서울지검 특수부장에



8월 26일 단행된 법무부인사에서 일부 검사동문이 영진됐다.

**黃性珍동문(19회)**

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재임 중 서울고검 검사로 발탁됐다.

**李迎雨동문(27회)**

은 부산지검 특수부장 재임 중 대검중수부 2과장으로, 金仁鎬동문(28회)은 대검중수부 1과장 재임 중 서울지검 특수부장으로 각각 발탁됐다.

**黃東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후사시(15회)에 합격한 이래 서울·부산지검 검사, 대검 중수부1과장, 서울지검 형사3부장, 특수1부장, 서울북부지청 차장검사,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李東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후사시(21회)에 합격한 이래 부산·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 4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金東문은 대학 3년때 사시(19회)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마산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환경과장 등을 역임.****李正鎬(20회)**

부산 동부지청 사무국장



李正鎬동문(20회)은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재임 중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으로 영진했다.

**李東문은 검찰직 공무원으로 출발한 이래 서울지검 부산지검 수사관,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산지검 공판사무과장, 부산지검 집행과장, 창원지검 부산지검 서무과장, 부산지검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金炯旿(20회)**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金炯旿동문(20회·국회의원)**

은 9월 2일 단행된 한나라당 당직개편에 따라 제1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기자로 활약한 金東문은 6공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14대 총선에 부산 영도에서 신한국당후보로 출마, 당선돼 원내에 전출한 2선의원이다. 金東문은 당기회조정 실장 등을 역임했다.****「...렌즈로 본 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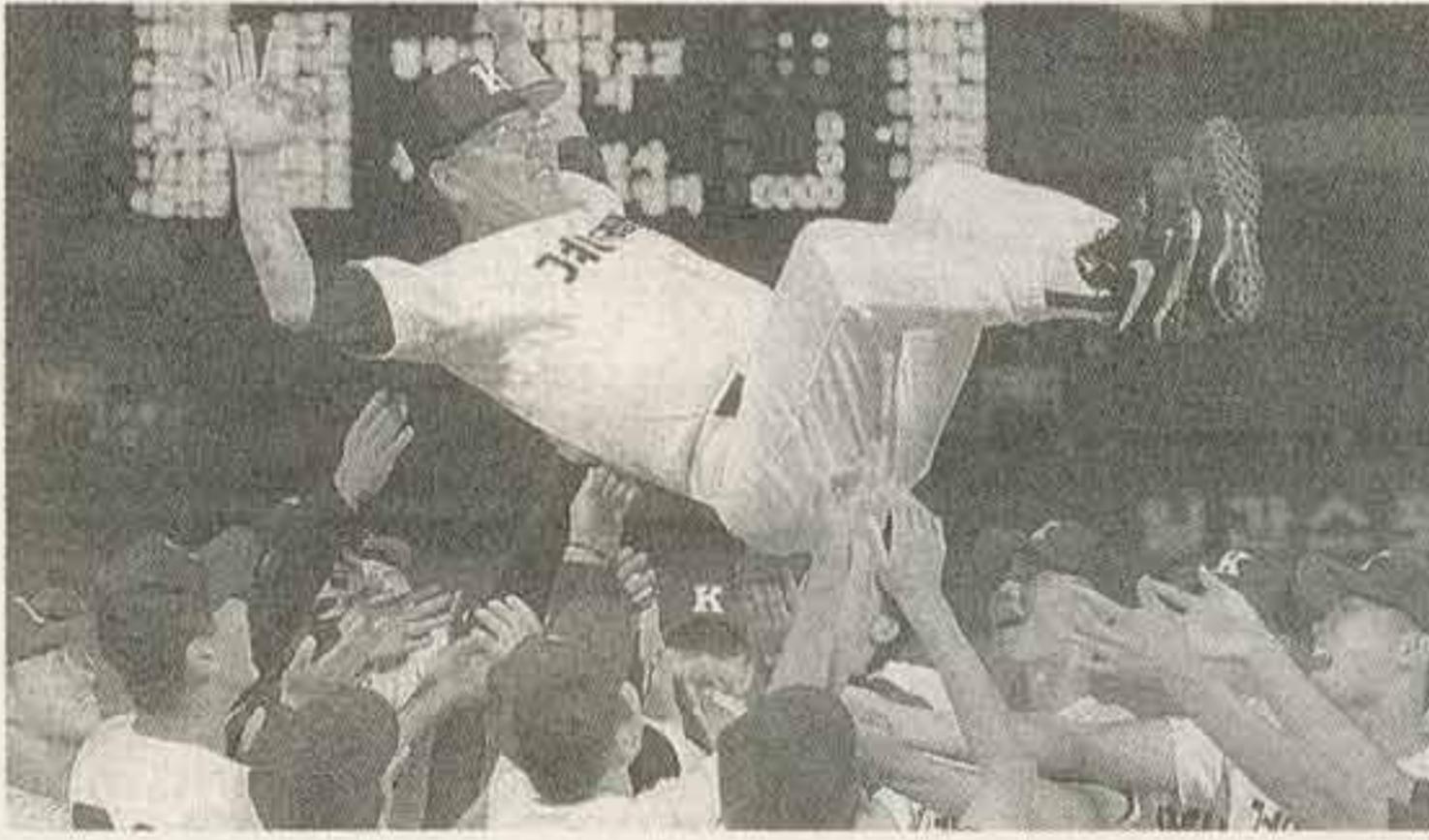
부산전시회 대회장 맡아

**한편 (사)미래사회정보생활 이사장이기도 한 金東문은 4~10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2층)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렌즈로 본 조국」부산전시회 대회장을 맡아 힘쓰고 있다.**

# “대망의 봉황대기 부산에 개선” 시민 열광

**역광장서 환영식·카페레이드 답례****정소영 본부동창회 회장 환영사****“올해 황금사자기·내년 6대 메이저 석권”을****본부동창회는 8월 26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28년만에 초록 봉황대기를 안고 개선한 모교 야구단 환영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에는 鄭昭永본부회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 및 각 동기회 회장단, 동문·기죽, 재학생, 시민 등 1천여명이 나와 『부산의 자존심을 경남고가 드높였다』며 『경남고 최고야!』를 연호하며 열렬히 환영했다.****鄭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불굴의 감투정신을 발휘해 숙원의 봉황대기를 품에 안고 개선한 선수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기 위해 황금사자기도 쟁취해 올해 대미를 장식하고, 내년에도 6대 메이저리를 석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후 5시 환영식이 끝나자 꽃다발을 한아름씩 안은 선수단은 우승기를 앞세우고 축하버스에 올라타 카페레이드를 벌였고 모교에 도착해 재학생****들의 환호와 종이꽃환영에 묻혔다.****선수단은 이어 金鳳吉교장을 위시한 전 교직원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우승기봉납식에서 金교장에게 영예의 우승기를 전달했다.****金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제 모교야구부는 무적함대로 일컬어지고 있다』며 『승승장구의 기량을 계속 발휘해 『전통의 명문』을 이어가는 밀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선수단은 이날 오후 7시 부산서구 서대신동 산정(13회 이범경 동문 운영)에서 본부동창회가 배운 환영 만찬회에 참석, 축하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金根燮 용마장학회 이사장(1회)을 비롯해 임원 다수, 金鳳吉 모교교장 및 전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감격...환호...울어버린 그라운드

**동문·재학생·학부모 우승확정 순간 얼싸안아****정기조 중앙대감독(29회) 선수 뒷바라지에 혼신의 노력****『후라, 경고! 우리는 이겼노라!』**  
**『오, 숙원의 봉황대기여!』****선수들은 서로 껴안은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게임 스코어 7-1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장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스탠드는 온통 열광의 도가니였다.****승자편도 패자편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지난달 24일 오후 제28회 봉황대기 결승전이 폐막된 서울 동대문 구장의 스탠드는 환호와 박수로 늦더위 속에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용마기족들의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마음 깊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金鳳吉 모교 교장(8회)은 비롯해 여러 교직원과 재학생, 선수 학부모,****본부 사무국의 崔得鎬국장과 金炳秀 총무 등 원정 동문들, 재경측의 金京喜고문 金榮海사무국장 金容贊총무와 다수 동문 등이 한데 어울려 교가를 목청 터져라 불렀다.****『전통의 명문』 경남고의 위상과 명예가 다시 한번 확인된 감격의 날입니다』 金교장은 눈시울을 적신채 멀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마기족들도 같은 심정으로 교감했다.****특히 80년대 중반 모교 감독을 지낸 정기조 중앙대 감독(29회)은 후배 선수들을 대회기간 동안 중앙대 선수협숙소에 기숙시키고 편한 잠자리에 매일 영양식을 제공했다. 또 틈나내도록 코칭스태프와 전략 및 각종 정보자료를 분석하기도 해 모교가 우승을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 “경남고 攻·守·走 전국 으뜸”

**야구전문가 스포츠기자단 등 전력 평가****모교는 봉황대기 우승을 계기로 전국고교중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야구 전문가 및 스포츠기자들에 따르면 모교는 국내 52개 고교팀 중 공격·수비·주력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올해 전국무대를 휩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쳤다.****마운드 경우 140km대의 빠른 공을 던지는 우완 송승준을 비롯해 오른쪽 타자는 몸쪽을 서슴없이 찌르는 직구와****슬라이더가 일품인 좌완 조상희, 면도날 체구력을 바탕으로 변화구 구사 능력이 탁월한 우완 강민영 등 에이스급 3명이 교대로 등판하면서 상대 타선을 교란, 압도한다.****공격력도 완벽하다. 1번 신민기에게 4번 이상훈, 5번 김진욱, 9번 강민영에 이어지는 파괴력 넘치는 타봉은 다른 팀 투수들의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대망의 봉황대기를 안고 개선한 경남고 야구팀을 위한 부산시민 환영 대회가 8월 26일 부산역광장에서 베풀어지고 있다.

## “모든 영광은 고난 이겨낸 선수들의 것”

**우승 제조기****정연회 감독(17회)****지면 지난 97년 부임 아래 10년 세월이 흐른 것 같다고 말했다.****정감독은 이번 대회중 8강 전에서 맞붙은 대구상고가 가장 힘든 팀이었는데, 대구상고를 제치고 나니 초록 봉황대기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말했다.****『나는 선수들을 지도할 때 선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 힘썼고, 이를 나의 야구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기본기 위주 훈련을 지도방침으로 삼고 있는 정감독은 현역시절 국가대표와 한전, 육군 야구단에서 명성을 떨친 강타자 출신. 83년 경남대 창단 감독으로 활약하다 프로야구 빙그레와 OB에서 코치생활을 했다.**

## “감독님 지도 잘 따르고 마음 비웠기 때문”

**MVP등 3관왕****김진욱군(2년)****6경기 연속 홈런은 고교야구 사상 최초의 일로, 이는 78년 실업야구 김우열(당시 제일 은행)이 세운 아마 최다 기록과 타이(프로 기록은 5경기)이다.****특히 김군은 이번 대회에서 모두 8개의 홈런포로 지난 89년 휘문고 박정혁의 대회 최다 홈런기록(6개)을 9년만에 경신했다. 5할2분4리(21타수 11안타)의 타율에 타점은 19개를 올렸다.****『수비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현대의 박경완 선수처럼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김군은 김재호씨(48·전축업)와 이화자씨(44)의 1남1녀중 맏이로 181cm·90kg의 우람한 체구에 손목 힘이 아주 좋고 배트 스피드가 빨라 오래 전부터 대학과 프로 등 여러 감독의 눈에 점찍혀 오고 있다.****명국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혔다.****한편 모교는 5월 23일 창원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 바스켓 정복에 성공, 13년만에 패권을 누렸다.****또 4월 18~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협회장기 챌린지 전국대회에서 서울시대표 용산중을 71대 60으로 대파, 우승을 차지해 올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제11회 동문 6명이 각자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백제문화가 찬란했던 부여·공주 등을 대상으로 회기장이 역사기행에 나섰다.  
사진은 관촉사 은진미륵 앞에서의 기념촬영.



## 회기장이 부부동반 역사기행

### 제11회 쌍우회 6명 부여·공주 등 백제문화 답사

제11회동기회 산하 쌍우회 회원 6명은 7월 31일~8월 2일 부부동반으로 회기장이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李聖光회장이 주재한 이번 여행은 우정과 사랑을 함께 재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혼여행길에 오른 듯 설레임을 감추지 못한 일행은 여행 첫날인 7월 31일 오전 부산역을 출발, 차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즐겼고, 대전을 거쳐 논산에서 신혼초야(?)를 만끽했다. 뒷날 일행은 백마강 낙화암 등 부여와 공주, 관촉사 은진미륵불 등 유서깊은 백제의 명소와 문화재를 답했다.

사했다. 일행은 백제권문화에 심취하며 그동안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날들에 보람을 느꼈다. 추억의 사진도 많이 찍고 별미와 토산주로 백제 땅 후예들의 훈훈한 인심을 마음 가득히 담았다.

일행은 부부따로, 남자따로, 여자 따로 기념촬영에 모양을 잔뜩 냈고 별미와 토산음식이 상에 오르면『여보, 이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자, 어서 많이 드세요…』하며 영감은 할멈에게, 할멈은 영감에게 서로 권하는 바람에 폭소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영세민 진료봉사에 자긍심”

용마가족은 지역사회에 춥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훈훈등불」 역할도 잘하고, 영세민을 위한 「슈바이처 정신」을 실천하기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본부동창회 산하 직능회를 순방, 활동상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의술의 손길을 기다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이 너무 많더군요. 그래서 이들 영세민들을 돋치고 뜻을 모았지요.』

영세민등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봉

두차례로 사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 아가 영세민에게 진료봉사를 배풀고 있다. 졸업한 선배들도 직접 복지관에 나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큰 힘이 된다.

용마회원들은 이곳에 와서야 영세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생각 외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소득층 및 영세민을 위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혀야겠다는 강한 애착을 쌓게 되었다.

졸업한 선배들의 후원금과 재학·신

입생이 회비로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용마회는 선후배 누구나 이 일에 대해 자긍심이 강해 결집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저희들의 진료봉사를 받은 영세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마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함을 느낍니다.』

임동문은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깨닫고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예비한의사의 용마회 동문들은 향후 뜨거운 정성과 폭넓게 확보된 후원금으로 양질의 봉사활동을 전개할 각오를 다짐하면서, 의료정책의 재정립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용마회원들이 영세민들에게 의료봉사를 배풀고 있다.



더불어 살며…

### 동의대 한의학과 동문

#### 용마회

사를 하고 있다는, 동의대 한의학과에서 미래의 한의사를 꿈꾸며 면학중인 동문들로 결속된 용마회를 찾아가자, 회장을 맡고 있는 임재형동문(47회·한의학 본과 4년)이 봉사활동의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85년 이 대학에 한의학과가 개설되면서 결성된 용마회는 95년부터 매달

### 제6회 9월 9일 월례회

제6회 동기회는 8월 27일 오후 6시30분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호텔 영빈관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朴雄鎮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20여명의 동문이 참석, 9월 9일 저녁 6시 30분 연제구 연산로타리 「코리아나비페」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

#### 文秀信(16회) 본부부회장 투병중 별세



文秀信본부부회장(16회)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동아대병원에서 가로증 8월 8일 별세했다.

중앙대 경제과를 졸업한 文동문은 본부감사와 부회장,

동기회 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경 도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헌신했다. 특히 본부 용마장학회 기금조성운동에 앞장서 왔고 모교야구부 육성과 모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남달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文동문은 평통자문위원 부산시스 키협회장 부산시교육위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 모교 농황대기 고교이구 우승 축하

## 在日本慶南中高教同窓會

### 〈東京地域〉

顧問 朴永敦(3회)  
安庸熙(3회)  
孫炳泰(4회)  
尹春貴(4회)  
徐鐘泰(5회)  
金榮碓(5회)  
李東燮(6회)  
崔莊翼(7회)  
金奉根(8회)

### 會長 金光信(16회)

金榮洙(8회)  
辛宣浩(9회)  
權奇卓(13회)  
安正行(13회)

### 副會長 朴隆彥(17회)

梁元模(17회)  
金大郁(18회)  
李鐘明(19회)  
金址昌(23회)

### 總務 朴永守(29회)

鄭沝滿(23회)  
李根培(24회)  
朴鍾國(26회)  
白善旭(28회)

### 總務 朴永守(29회)

李鎮旭(29회)  
韓承東(29회)  
申九東(30회)  
權和根(32회)

### 幹事 李相權(35회)

### 〈大阪地域〉

會長 姜周洪(7회)  
金榮祚(23회)  
尹一重(26회)

### 〈其他地域〉

丁銀根(姫路市)(8회)  
張健浩(埼玉県川越市)(26회)  
李惠昊(香川縣高松市)(38회)

### 제12회 이사회 뉴욕 김해락동문 참석

제12회 동기회는 8월 11일 오후 7시 중구 동광동 「일번지일식집」에서 98년 2차 이사회를 열었다.

趙哲元 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30여명의 동문이 모였고, 특히 미국 뉴욕의 金海樂동문이 모처럼 참석해 미주지역 동창회 및 동문들의 소식보따리를 풀어놔 분위기가 더욱 즐거웠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년 동안 부산 시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한 文正秀 전 부산시장과 부산시장선거에 출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河一民동문(부산대 교수)을 위해 견배를 했다. 이어 文·河 두 동문은 그동안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했다.

용 마 준 주

제15회동기회에서 얘기되는 3대 불가사의가 있다.  
정영선이 의사가 된 것, 유병용이 약사가 된 것, 안충웅이 교사 된 것.

요즘 사(師)자 단 사위보는 데 몇억씩 듣다니까 나도 어쨌든 한때는 세상 살아가는 라이센스(license) 치고는 꽤 값나가는 것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남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경우는 그랬다. 98년 동기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나는 한참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학식은 교사를 했으니 조금은 있다 치더라도 덕망이 있나, 사회적 지위가 높나, 돈이 있나? 그렇고 그런 나에게 참회와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는가 아닐까 오히려 의아해 마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 정년 퇴직, 명퇴, 조퇴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동기들이 너무 많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로 돋고 위하는 길 뿐이다.

아끼며 사랑하자!  
열심히 일하다 쉬고 있는 친구들에게 소주 한 잔 전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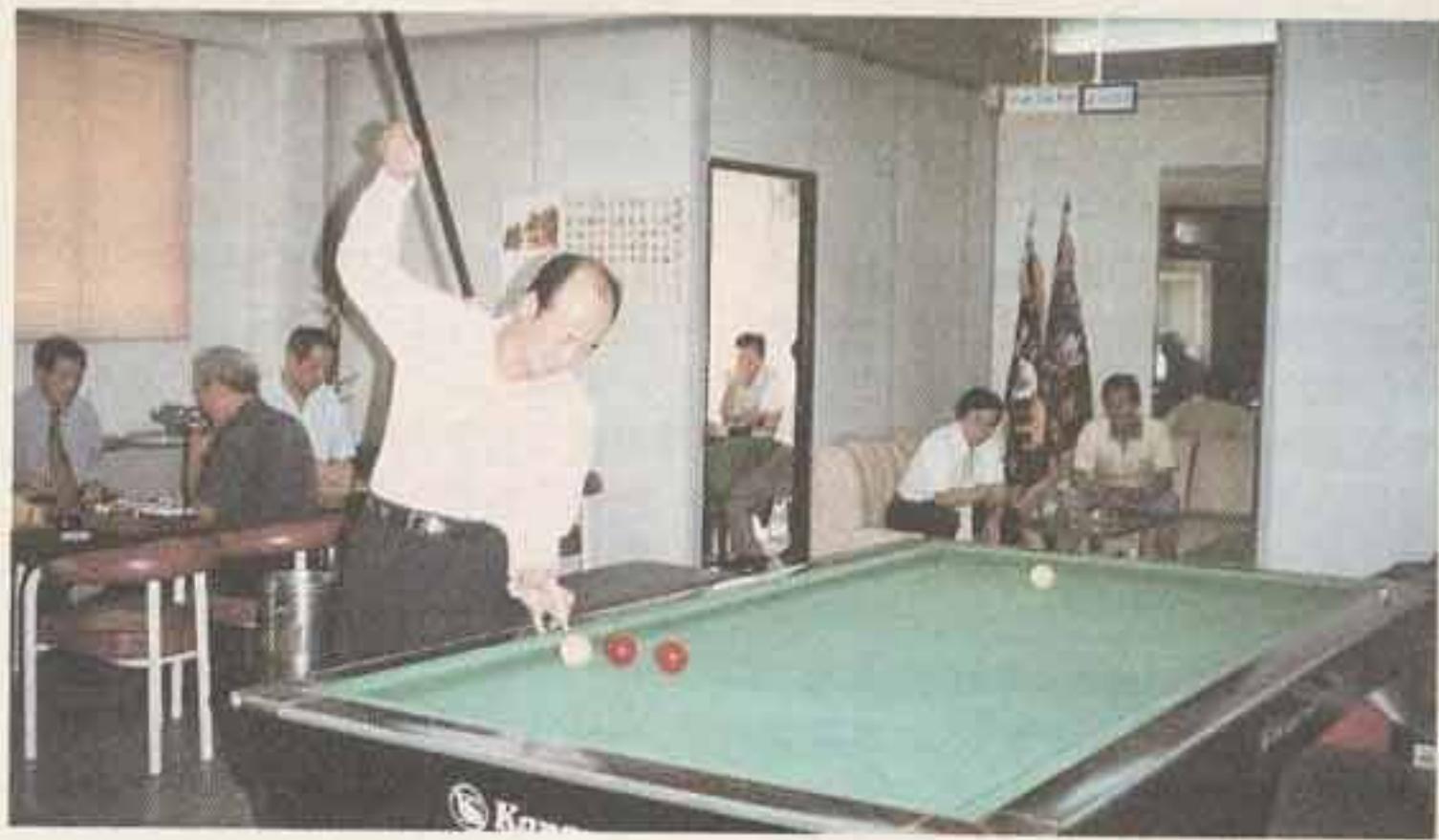
마지막 남는 것은 가정과 친구밖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학창시절 기회가 없어 깊이 사귀지 못했던 친구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철없고 어리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벌써 할아버지가 돼 있다. 허연 백발들이 어디서 온 불청객들인가?

조용하고 깨끗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Return to Nature)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 아닌가? 살아오면서 덮어 쓴 먼지들을 털어내고 산 좋고 물 맑은 조용한 곳으로 가 자연과 얘기하자. 동기회장이란 감투가 내겐 너무 과분한 것이란 걸 잘 알지만 열과 성을 다해 뛰고 또 뛰면 되리라 믿는다.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동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가치를 자리매김해 놓고 우선 얼굴을 자주 부딪칠 수 있도록 판을 벌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참회하고 봉사하는 길에 서서.

# 전국 최초 「당구장 쉼터」 오픈



## 제18회 사무실에 동문 편의시설 갖춰 “인기”

하루 20~30명 출입... 식음료 협찬 풍성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당구대와 간이식당을 갖춘 동기회쉼터가 부산에서 오픈, 연일 수십명의 동문들이 모여들어 우정을 나누고 있다.

제18회 동기회는 金俊吉회장과 육병규총무의 배려로 부산진구 양정교차로 LG전자 건물 2층 40평 규모에

제18회 동문들은 「당구장 쉼터」로 꾸며진 동기회 사무실에 모여 우정을 돋우고 있다.

각종 음료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담소실 등으로 구분돼 있어 자신의 취향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0~30명이나 드나드는 이 쉼터는 방문자들이 김밥·돼지족발·쇠고기·라면·생선통조림·햄 등 음식물을 비롯해 소주·맥주·음료수·국산 차·커피 등 갖가지 식음료를 협찬하고 있어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제8회 재경동기회 취미클럽별 즐거운 행사

제8회 재경동기회(회장·이창규·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동문들은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철에도 건강을 지키면서 여생을 즐기는 갖가지 행사를 펼쳤다. 엘리뇨의 앙칼스런 심술과 금융위기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정은 여전히 뜨겁다.

당구대·바둑대국실·담소실 등 3개 코너로 된 동기회쉼터(전화: 852-6418)를 마련, 6월 10일 오후 6시 개소식을 거행했다.

30여 동문들의 축하속에 이날 문을 연 쉼터는 당구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코너와 바둑대국실, 간단한 식사 및

## 부인석

### 임갑희

(23회 박기육동문 부인)

서울아가씨가 웬 촌면장같은 경상도 사내의 뛴(?)에 빠져 부산으로 시집가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집안이 벌집 쭈셔 놓은 듯 했다.

어머니는 『너무 멀고, 너무 거칠다.』며 질색이었다.

그때 나는 미국 갈 준비를 하던 터라 안면 바꾸고 「깡통구좌」로 시집에 들어왔다.

4대 시집살이 속에서 못알아 듣는 경상도말은 남편이 통역(?)을 해주었다. 대답이야 늘상 『예, 예』 하지 만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멍청히 서있을 때가 많았다.

『형수요, 손 씻꼬이소. 수박 묵꾸로.』

『어머, 수박이 썩었어요?』 식구들이 한바탕 웃었다. 나는 부끄러운 일에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나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경상도말을 열심히 배웠다.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시집살이에 피가 날 무렵 돈벌이를 해야겠다며 음식업(한식 대중음식점)에 도전했다. 그런데 손님들마다 어디서 들었는지 『이집 사장이 경고나왔다면 서요?』하며 확인했다. 그럴 때면 나는 『경상도에 있는 학교는 다 「경고」



## “동기회 사무실은 고향같은 곳” 남편 「同門愛」 이제 알 것 같아

아니예요?』하며 능청을 떨었다.

어느 날 남편이 동기회장을 맡더니 연임 영광까지 안았다. 돈이 제법 드는 모양이었다. 동기회 사무실에서 온다면 늦을 때가 많았다.

하루는 따졌다니, 그이가 말문을 열었다.

『남들은 동기회사무실을 그냥 그런 곳 쯤으로 알지만, 실은 고향같은 곳이야.』라고 시작하고는 『동문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랑방, 인정과 추억이 높아 있는 곳, 사업이 어려워 골치를 아파하거나 실직한 친구들이 그래도 가장 마음 달랠 수 있는 쉼터, 형편이 나은 친구들이 표시나지 않게 운영비를 협찬하고, 결혼사를 당한 친구들이 그곳에서 재회하여 축하하고 위로해 주는 곳, 이 각박한

『경고』에 보내겠다며 고생하셨던 그 때 시어른의 마음이 헤아려진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나서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의 울타리가 마치 공기처럼 느껴진다.

그래, 제로 베이스에서 관에 못박을 때를 한 공간으로 놓고 보면, 가장 자유롭던 시절을 공유했다는 것은 특히 세파에 시달리는 남자들에게는 대단한 공통분모이리라. 인생의 귀로에 선 선배, 새로 뭉쳐온 후배들이 「경고」라는 일직선에 달린 운동장의 만국기처럼 다채롭고 정겹다.

괴관한 채 우리 집 〈삼오정〉으로 찾아오는 동창생을 어떻게 해줘야 편안한 마음이 될까? 그이의 무심한 듯한 표정 속에는 「경고」에 대한, 동문을 향한 애정이 늘 담겨있다.

세상에서 그래도 그곳만은 향기가 있는 곳, 멀리 떨어진 친구의 연락이 닿는 곳...』 그이의 연설은 너무 멋있었다.

괜히 말한 내가 부끄러웠다. 우리 집 애들을 소위 명문대학에 보낼 거라며 속을 태울 때가 돼서야 「경고」의 진가를 깨닫게 되었다. 밀양촌바닥에서 아들을 명문고인

에게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나죽지 않고 살아있었네.」를 깨닫게 하는 것.

김동문은 93년 월간 시전문지 「현대시」로 등단한 아래 시전문계간지 「시와 사상」 편집동인 대표, 한국시인협회·부산시인협회·부산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동기회보 편집장을 맡아 「삼공회보」 창간호 산파역을 했다.

문학세계사刊.

## 용마가족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 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각 동기회·지역동창회·해외지역동창회·직능동창회는 각종 행사와 「어디서 무엇을」, 제언, 문예물을 수시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경남중고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 245-7551~3  
(FAX) 245-7550

## 변호사 개업 인사

裴在昱 (17회)  
율립

골프동호인 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8월 20일 안성CC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7월 16일 이곳에서 연 친선경기는 동문·부인팀별로 접전을 벌였다.

▲동문팀: 우승 김영일·준우승 정진수·3등 김한진·행운상 박지병

▲부인팀: 우승 이정자(이유환 부인)·준우승 김정화(이창근 부인)·행운상 장은아(윤태영 부인)

한편 바둑 동호인 모임인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9월 19일 오후 1시 제일기원에서 월례대국을 치른다. 제일기원은 교대역에 내려 옛 서초설령탕으로 가는 길의 왼쪽 빌딩의 2층에 있다. 문의는 전화: 3476-1771로 하면 된다.

## 제37회 이사회 황창식회장 취임 축하

제37회동기회는 8월 21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내골 크리스탈비페에서 황창식회장(대신학원 강사)과 최기영수석부회장, 이수영총무의 취임 축하회를 겸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황창식회장은 성창수 직전회장으로부터 누적된 회비적자분을 탕감한 동기회 살림을 인수하고, 앞으로는 이사회 및 동기회비를 각자 형편대로 온라인을 통해 자동이체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동문들은 「부산은행 023-12-027814-0 예금주 경남고 37회」로 온라인 송금하면 된다.

## 동문이 펴낸 NEW BOOK

### 「세무관리론」

부산중부산세무서장  
申鉉浩(14회) 지음

1편은 조세와 연관 있는 학문체계와 미국 등 각국 학계에서 이론을, 2편은 세무관리의 기본적 원리·세무관리 능력·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의 조정 관리 등을, 3편은 실질적인 세무관리를 위한 실무를 분석하고 있다.

申동문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세청 등에서 주요 간부를 거쳐 창원세무서장을 역임했다.

부산 동의대 중소기업대학원 강사와 양산대 겸임교수.

한국세정신문사 刊·값 1만5천원.

### 「하얀 욕망...」

시인·내과전문의  
김경수(30회) 저녀시집

하얀 욕망이 눈부시다



은 땅) 중에서  
그의 시가 내리는 처방은, 도시민들에게 환부를 또렷이 보여주고 절망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들에게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나죽지 않고 살아있었네.」를 깨닫게 하는 것.

김동문은 93년 월간 시전문지 「현대시」로 등단한 아래 시전문계간지 「시와 사상」 편집동인 대표, 한국시인협회·부산시인협회·부산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동기회보 편집장을 맡아 「삼공회보」 창간호 산파역을 했다.

문학세계사 刊.

국내외 동문·가족 여러분의 평소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끝으로 정든 공직을 떠나 다음 장소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5기)·미국 미시간대 법과대학원을 거쳐 서울·대구·울산지검·경주지청·법무국 검찰국 각 검사, 거창지검장, 대검공보관, 대검 중수부 4과장,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선후배 동문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충고와 격려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두고두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재야법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오니 변함없이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며, 용마가족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고 건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998년 9월 1일

◆업무개시: 9월 1일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3호

(경찰청 정문 앞)

◆연락: 전화 (02)3482-0077(대표)·FAX (02)3482-0080

◆개업축하소연: 9월 11일(금) 오후 5시부터

## 도교지역동창회

李鐘明(19회)=지난 5월 韓國船級東京事務所長 着任  
孫泰炯(23회)=駐日韓國大使館 稅務官으로서 3年間勤務를 모두 마치고 8월 30일 帰국予定

## 원주지역동창회

김장영(7회)=(자택)평원동 241-11 5/1. 42-3894  
우철동(10회)=(자택)학성1동 1054-1 6/3. 42-4747  
김원경(12회)=동악건설 전무(E마트). 762-4583. (자택)학성동 삼천리APT 201동 911호. 48-2477  
김종수(14회)=연세대 부총장. 760-2101. (자택)홍업면 메지리 234 연세대 원주캠퍼스. 43-2356  
윤휘정(15회)=수한양행 대표. (0372)42-0601. (자택)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43-5. 42-9035  
정광평(16회)=하얀집 침구 대표. 732-6989. (자택)45-5989  
윤강목(18회)=윤강목이비인후과원 장. 42-4924. (자택)45-0185  
정한주(21회)=쌍용시멘트 자원부장. (0373)370-8810  
이한석(21회)=영월지원 집행관. (0373)374-4987  
김형우(23회)=신우건설 이사. 46-0005. (자택)45-7645  
장재화(25회)=상지대 영문과 교수. 730-0205. (자택)44-8647  
차인환(25회)=차산부인과의원장. 제천 중앙로 2가. (0443)42-6170. (자택)0443-45-4307  
이경국(26회)=서울치과의원 원장. (0443)45-1432  
이재봉(26회)=원주의료원 마취과장. 761-6911. (자택)43-5122  
이종배(26회)=상지대 한의대 학생. (자택)45-3877  
이해룡(28회)=연대의대 소아과 교수. 741-1286. (자택)43-5207  
박용수(28회)=원주의료원 내과과장. 760-4519. (자택)42-6333  
김중경(28회)=세명대 자연공학과 교수. (0443)49-1319. (자택)45-1125  
김의진(28회)=쌍용시멘트 자원개발부. (0373)370-8114  
김용식(29회)=보성치과의원 원장. (0443)43-2727  
김종운(29회)=경희한의원장. 765-5213. (자택)765-6594  
김태희(29회)=상지대 한의대 교수. 730-0289  
최창훈(30회)=상지대 한의대 학생. (자택)43-5296  
김성훈(32회)=세명대 광고홍보학

과 교수. (0443)49-1262  
박용진(37회)=상지대 한의대 학생. (자택)48-0877

## 제6회(부산)

崔相國=6월 24일 병환으로 별세  
김주호=7월 11일 차남 결혼  
權興龍=8월 10일 병환으로 별세  
裴鍾權=(자택이사)사상구 폐법동 516-3 폐법2차 한신APT 203동 602호. 324-1760  
金溶澤=8월 15일 서라벌호텔에서 장녀 결혼  
張在洙=8월 28일 태평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임  
尹炳龍=8월 31일 원예고등학교 교감 정년 퇴임  
具河書=(전화번호변경)(0525)323-3794

## 제8회(부산)

김봉길=경남고 교장. 9월 13일 오후 3시 서울대 호암생활관 삼성컨벤션 센터에서 차남 관수군 결혼 (주례 동기생 김진석 변호사)  
김성호=9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자유센터 웨딩홀 평화홀에서 장남 정철군 결혼  
장혁표=(전화번호변경)011-590-2632

## 제8회(서울)

박지병=(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APT 313동 401호. (0342)701-4628  
손석훈=Scotch Cleaners, 3318 Foothill Blvd, Oakland, Calif. 94601 U.S.A.  
정현수=8월 3일 교통사고로 상해하였으며 본인도 서울중앙병원 93동 39호에 입원 가료중입니다. 꽤유를 빙니다

## 제9회(부산)

裴鍾台=(자택이사)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624-9 석림그린빌라 13동 301호 (0525)43-2084. 지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김해시 의원에 당선  
尹日明=(자택이사)김해시 진영읍 내용리 293. (0525)43-0888  
李辨俊=(자택이사)사상구 모라2동 1236 한일 APT 2동 103호. 312-7542  
金鍾求=(자택이사)사하구 괴정4동 762-41. 291-5920  
金成宇=(자택이사)중구 영주1동 636 6/4 일신맨션 602호. 468-9748

具定雄=(자택이사)서구 암남동 234 오륙도횟집. 254-1356  
李東炫=8월 27일 거제시 장승포동 해성고등학교 교장 명예퇴임. (자택) (0558)681-2673

## 제10회(부산)

宋南進=부산 산부인과의원 (개원). 수영구 수영동 450-12. 753-2635  
方奉佑=안건회계법인. (사무실) 전동구 범일동 825-3 놀원빌딩 13층. 644-5151  
李仁泰=연화식당(개업). 연지동. 817-7587  
吳剛旭=7월 25일 허심청 대연회실에서 딸 결혼

## 제10회(서울)

孫昇安=7월 4일 숙환으로 별세  
金萬郁=(자택이사)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 5-37-2 진도 APT 104동 1602호. (0346)521-2526  
秋仁暎=(자택이사)성동구 마장동 818 현대APT 111동 902호. 292-3567  
李秉澈=이병철세무회계사무소 (사무소개설). 의정부. (0351)829-0277  
李相華=9월 19일 오후 1시30분 올림픽 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장남 석준군 결혼

## 제11회(부산)

姜秀雄=대한보증보험 상록총괄대리점 대표. 462-5630. 지난 3월 남천성당에서 장남 동현군 결혼. 8월 29일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증세로 무릎수술을 하여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중(9월말까지 입원예정) 병실전화 (02)708-1041 (자택)622-3552  
金東武=시민황토구이전문점(개업). 서대신동 로타리. 243-9990. 017-593-2778  
呂運洛=지난 교통사고로 투병중. 동기들의 위로전화 부탁드립니다. (자택)부산진구 개금1동 177-129. 894-2086  
李相勳=정구제과 대표. 지난 7월 개업20주년 행사 개최. 893-4173  
鄭光雄=(자택이사)해운대구 좌동 1333 대우1차APT 111동 1502호  
金鍾求=(자택이사)사하구 괴정4동 762-41. 291-5920  
金成宇=(자택이사)중구 영주1동 636 6/4 일신맨션 602호. 468-9748

515-6239

## 제12회(부산)

金海樂=뉴욕거주. 8월 10일 일시

귀국 동기회 사무실 방문  
文正秀=(자택이사)북구 금곡동 유림금곡APT 205동 402호. 363-0312

朴正潤=구례화엄사 연민회관 대표. 지난 수해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朴彰=세계불교신문 편집인(취임). 555-5535

安永圭=부산의료원 병원장. 8월 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차녀 결혼

鄭棟植=동의대 교수. 9월 6일 차녀 결혼  
河一民=국민회의 부산 금정을 지구당 위원장. 8월 20일 장전동 웨딩프라자 국민의당 부산 금정을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당선

산에 체류하며 지낼 예정

李同福=사하경찰서 괴정3파출소 부소장. 204-2924

千光吉=삼락초등학교 교사. 303-3524

趙成輝=대연초등학교 교사. 721-1302. (자택이사)해운대구 재송동 코오롱 APT 112동 502호. 783-4990

李在隆=在日大韓基督教 東京 베데스다 教會 목사. 03-3838-2129.

李成奎=울산 현대중공업(주)전장설계과장으로 재직중. 지난 년말 퇴직하고 서울에서 도시락 전문점 경영하다 숙환으로 8월 23일 별세.

## 제17회(서울)

裴在昱=변호사 개업.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3호. 3482-0077

## 제18회(부산)

高萬淑=풍성실업(주) 대표. 동기회 사무실에 슬리퍼기증. 527-9061

金萬根=삼우실업(주) 대표. 325-3511

金元泰=김원태회계사무소 소장. 동기회 사무실 전화기증. 241-0700

朴碩道=영도세무서 소득세 계장 전보. 9월 20일 오전 11시 목화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256-4754

申旻燮=인풍(주) 영업상무. 636-9966

徐富原=한샘주택(부동산, 실내장식) 대표. 202-4212

徐成德=아람유통(주) 대표. 722-3111

陸炳奎=동기회 사무실 실장. 852-6418

李星一=삼보산업(주) 전무이사. 동기회 사무실에 에어로기증. (0553)41-0130

李香雨=청조테니스장 대표. 9월 6일 장녀 결혼 글로리아콘도예식장. 745-0754

張壽一=신성그래피(타일 모자이 디자인) 대표. 865-2088

鄭容浩=창원병무징병검사장. 지난 8월 13일 모친 별세. (0551)79-9282

許泰烈=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구당 위원장. 972-6836

## 제19회(부산)

김성필=C.T.I.반도체(주) 이사. (자택)742-4166

김성희=JAL부산지점 이사. 469-1215~9

## ◆ 모교 봉황대기 고교이구 우승 축하

## 제5회 동기회 임원·회원 일동

회장 鄭九泳	회원 姜吉秀	金鎮萬 金武福	金定泰 金鍾健	裴基武 裴春燮	劉炳漢 劉月榮	李太申 李洪雨	鄭昊璘 鄭萬吾	崔三柱 崔容植
부회장 文正淳	姜周碩	金秉武 金和聲	金炯大 盧在銀	卞東昌 尙基中	俞鎮漢 尹明浩	李文基 李景玉	鄭籍澤 鄭泰源	崔元球 崔雲洙
감사 鄭進愚	孔鎮一	金昌南 文翰圭	文翰圭 文潤庭	徐正萬 成贊永	尹星琦 尹性浩	林尚澤 林外澤	鄭寅漢 鄭熙俊	韓惠愚 黃明化
총무 金洙鉉	權赫七	金戊坤 金海東	朴炳仁 朴命浩	宋斗成 申鉉五	李光洙 李榮允	任正元 林聖業	丁壽榮 趙吉濟	黃輪性 黃良炫
	金殷奎 金成出 金永昊 金榮道 金熙水 金政奎	金仁澤 金均度 金潤德	朴命浩 朴眞佑 朴相潤 朴讚燮	朴正午 嚴基東 禹明洙 禹昌雄	王成殷 李惠鉉 李在哲 李在鉉	池用夾 林采煥 張錫元 鄭嘉謀	陳道榮 陳道進 崔庚出	黃柱泰

김순호=(주)삼회스포츠 대표이사. 205-5852~3  
김양규=대현수산 대표. 248-1461  
김영복=(주)원다 대표이사. 203-1881~3  
김영진=성부건설부장. (0523)388-2477  
김영한=덕문여고 서무과장. 756-1802  
김용식=경북 경주시 성건동 711-2 농장경영. (0561)772-2779  
김용엽=제일그랜드인쇄 대표. 469-9559  
김윤기=일미성형외과의원 원장. 806-5571  
김재상=KAL캐나다지사장. (자택) 502-5671  
김중기=(주)한신공영. (자택) 469-3359  
김진국=김진국산부인과의원 원장. 512-0900  
김천균=동의공업고등학교 교사. 816-7605  
김철호=백병원 소아과장. 895-3031  
김형락=아산중기 부산지사 전무. 247-9980  
김호철=남산동 초가집 대표. 516-7050  
남진현=신라관광 대표이사. 247-3731  
남태욱=신송수산 대표. 255-9700  
남태현=거문도수협 상무. (0662) 666-2735

## 제20회(부산)

金弘大=대원인쇄문화사 전무(취임). 244-5500  
姜杜相=한국오루강공업(주) 부장. 558-1911. 모친 별세  
李正鎬=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국장(영전). 781-1919  
蔡京錫=오복식품(주) 대표이사. 205-8911. 경남 진례에 제2공장 준공. 세계 최고 수준의 간장제로 시설 완료  
黃明煥=(자택이사)해운대구 좌동 1310 화목APT 110동 605호. 703-3073

## 제21회(부산)

姜旬錫=동아제분 수산공장 생산부장. 서구 암남동 171-19. 256-5741. 6월 29일 부친 별세  
金世基=세연화원 대표.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3031호. 634-6518  
金漢揆=한화내과 원장. 성남시 분당. (0342)702-5412  
朴相潤=장의용품대리점 (주)영광. 사하구 감천동 774-3. 293-4785

朴昌秀=대치산업 대표. (공장이전) 사상구 덕포동 381-7. 303-1836  
宋元灵=한성생명 영업이사. 동구 수정동 3. 464-3864  
申南錫=맥소프트뱅크 상무이사. 수영구 광안동. 755-0144  
吳巨敦=부산시 종합개발 사업단장. 888-2050. 한국일보가 추천한 2000년대 인물 50인에 선정  
李英相=삼성생화재 해상보험대리점. 637-2420  
李赫=(주)해동 대표이사. 사상구 삼락동 71-1. 301-5511  
梁秉胃=부산세관 심리개. 8월초 교통사고로 어깨탈골 동대병원에 입원중  
張星漢=단란주점 폭포룸(개업). 해운대구. 742-4188  
鄭金培=사하구 감천2동 동장. 203-3035. 6월 20일 부친 별세  
崔鉉斗=(자택)사하구 당리동 325-5. 201-4093. 7월 4일 부친 별세

## 제22회(서울)

이인준=부산시 중구청장. 460-8201

## 제23회(부산)

金東沃=인제대 교수.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다 귀국. (자택) 사하구 괴정1동 자유APT 101동 1086호. 206-2513  
金玟洙=대명상사 대표. 019-502-1502  
金眞輝=동기회 총무. (주)청류기업 전무이사. 011-869-6980  
金泰容=부경대 교수.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다 귀국. 620-6553. (자택) 수영구 수영동 현대 APT 104동 1506호. 752-6408  
金顯=경남도청 환경정비과장(승진). (0551)79-3550  
朴鍾元=대한항공 호늘률루 팀장. 부친 별세  
朴在浩=동의공업대 전자과 교수. 019-501-3195  
朴哲秉=산동회계법인 부산·경남 본부장. (전화번호변경) 011-560-7266  
孫君植=주택은행 김해지점장(전보). (052)33-7751~4. 011-577-5300  
安秉律=MBC부산문화방송 TV제작국장 대우(승진). 760-1211  
劉駿浩=(자택이사)사하구 하단2동 1161-2 가락타운 105동 206호. 207-4029  
尹滿秀=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호출번호변경) 012-1572-

3401  
李圭奉=동의공업대 건축과 교수. 860-3100, 3105  
李炳贊=삼일회계법인 부대표(승진). 018-232-3662  
李在根=(자택)해운대구 중2동 152-1 이진빌라 2동 509호. 743-6363  
李忠鎬=부산여자대 교수. 850-3020  
張百基=부산정보대 건축과 교수. 330-7147  
全暎朝=전영조세무회계사무소 소장. 공인회계사. 011-873-8833  
洪永熙=로얄 대표. 293-1107. 011-889-0633

## 제25회(부산)

李相英=(자택) 수영구 망미1동 현대 한누리타운 102동 103호. 461-8642. 017-540-8642  
金吉守=목천화원 대표. 부산진구 양정동 390 양정꽃시장 4층 5호. 868-4601  
安熙錫=LG화학 산업제 사업본부 부산영업팀 부장. 801-2530  
金鍾滿=현대자동차서비스 부산중부 영업소. 466-4400. 011-848-8865  
조광재=경찰신문 부산총국 취재부장. 722-7200  
朴秉浩=(주)광동휴텍 부산사업본부 부장. 805-1739  
李漢植=공간건축사무소 소장. (사무실이전) 627-4026

## 제27회(부산)

김태우=동기회장. 9월 10일 변호사 개업. 242-9908  
姜大勳=강대훈치과의원. 897-4194  
姜龍洙=중앙치과의원. 245-9156  
姜賢安=울산지방법원. (052)259-0031  
桂豪慶=계호경치과의원. 623-

7442  
高炳鉉=동주여상. 246-4642  
具京仁=(자택) 수영구 망미1동 820-1 동방맨션 502호. 759-7915  
具永昭=백양주유소. 893-4242  
權赫祐=한화종합화학. (052)277-1130  
金官世=김관세치과의원. 554-4858  
金光洙=중소기업은행 부전동지점. 816-3301  
金大慶=동보 수중건설(주). 816-3366  
金東圭=삼성증학교. 208-5322  
金東秀=대한주택공사. 892-1387  
金明保=중앙여중. 255-0750  
金明俊=춘해병원내과. 645-8971  
金炳澈=부산도시가스. 623-9886  
金富允=부산대 사범대학. 510-2685  
金尚廷=김상정내과. 327-7575  
金洙英=한국3M. 466-0711  
金榮喆=김영철내과의원. 416-2002  
金容燮=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052)259-4730  
金龍元=아세아태평양법률사무소. 246-7891  
金龍津=춘해병원 정형외과. 645-8971  
金元洪=대원장여관. 253-7005  
金利清=진해내수면 연구소. (0553)546-3521  
金在凡=경악국. 893-8118  
金正裕=김정유이비인후과. 248-1778  
金駿炯=부관폐리총무과. 463-3161  
金昌俊=김창준치과의원. 469-5521  
金泰完=영동스텐레스. 201-0303  
金弘均=에덴불링. 203-0224  
盧承萬=노승만산부인과. 262-6767

## 제28회(서울)

金明洙=(주)다영대표. (사무실이전) 3431-3496  
金成泰=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5월 26일 부친 별세  
金昌培=승실대 물리학과 교수. 6월 19일 부친 별세  
李真熙=(개업) (주) S.P.Consulting 대표이사. 강남구 포이동 218 우창빌딩 301호. 5757-900  
文八岩=KAL부기장. 7월 6일 부친 별세  
李昌建=대동조선(주) 이사. (0553)548-1122  
鄭永柱=(주)르반트 상무이사(사무실이전). 884-3254  
金容燮=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金憲秀=데이컴네트워크서비스본부 장. 220-5100  
盧文鎬=삼성반도체 구매부장. 760-7934  
盧泰漢=단국대 천안분교 교수. 2월 14일 부친 별세  
朴錫煥=부경주재 대사관 참사관 86-10-6505-4890  
朴贊=삼성금융그룹 전략기획실부장. 259-7376. 011-233-6025  
嚴虎聲=변호사(개업) 서초동법원 앞. 537-3200  
吳世淳=신명한의원. 277-2461  
李秀同=중국근무  
李春盛=서울지점. 530-4396  
최광해=삼성전자 이사. 4월 17일 모친 별세  
黃仁業=4월 24일 부친 별세

## 제29회(부산)

李公哲=5월 23일 부친 별세  
李石祚=5월 2일 아리랑관광호텔에서 부친 고희연  
이간우=대림파이낸스 총무이사. 863-4422  
裊景煥=현수막발전소(개업). 동래구 인락1동 421-30. 555-4537. 011-850-4537. (자택) 해운대구 좌동 주공APT 2단지 203동 1204호. 704-4537  
趙成鎮=(자택이사) 해운대구 좌동 대우1차APT 110동 1802호. 704-3962  
安青洪=(자택이사) 영도구 봉래동 미광마린타워 102동 803호. 412-2439  
金鐵五=녹십자의원. 727-3355. (자택) 해운대구 우1동 벽산1차 APT 106동 1201호  
沈元燮=심원섭정형외과(확장개업). (0525)37-2001  
金仁俊=(032)546-6871. 5월 2일 모친 별세  
裴現鎬=매현호내과(개업). 328-0075  
金再憲=6월 22일 Expo Lions 355-A(부산지구) Lions 회장 취임  
李岡勳=상업은행 부산지점(전보). 246-0181  
金容煥=기술신용보증기금 서면지점(전보). 808-9701  
辛昌浩=7월 1일 부친 별세  
金大榮=7월 31일 부친 별세  
趙允濟=부친 고희연  
박문국=8월 5일 미국 뉴로체스타대학 2년간 교환교수로 출국  
李陽=(자택이사) 동래구 사직2동 삼정그린코아 110동 1401호. 501-5057.

## ◆ 모교 봉황대기 고교이구 우승 측화

## 제18회 동기회 임원명단

고문  
金敬傑=동원칠강상사 대표  
金吉帝=(주)USC 대표  
金吉出=한국주철관광업(주) 대표  
金大憲=신한방사선과 원장  
金東會=(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시공소 대표  
金舞龍=삼일전기공업(주) 부사장  
金在警  
金鍾文=신생건축 대표  
金元泰=김원태세무회계사무소 소장  
朴省鐵=박성철소아과의원 원장  
朴榮復=신아토건(주) 대표  
徐溶兒  
安昌範=동의대학 한반병원 학장  
吳基贊  
禹元鎬=태동의료기공업사 대표  
李相敏=허쉬파파 남포대리점 대표  
李香雨=청조테니스장 대표  
韓聖根

직전회장  
朴鍾淳=박종순산부인과 원장  
회장  
金俊吉=한양공업(주) 대표  
수석부회장  
姜東燮=강동심소아과의원 원장  
총괄부회장  
金泰均=조은그림비디오 대표  
직능별회장(동기회부회장단에 속함)  
金恩根(공무원) 사하경찰서 서장  
朴佑仁(금융계) 부산은행연체점 지점장  
朴道亨(개인사업) ALLA쇼핑 대표  
孫燦奎(약업계) 동서약국 대표  
林道根(서·사하자구) 삼공사 전무이사  
李星一(전문경영인) 삼보엔씨(주) 전무이사

崔寬哲(제조업) 부영엔지니어링(주) 대표  
李祐三(기우회) 팔도약국 대표  
洪光喜(산악회) 국세청  
鄭起龍(교육계) 성모여고 교사  
南斗鎬(건설업) 금강에식장 대표  
부회장단  
姜鐘植=강종식내과 원장  
金德根=김근내과 원장  
金相奎=동남상사 대표  
金用大=김용대 정형외과 원장  
金鍾琴=김종금 산부인과 원장  
李相木=부산의료원 가정관리과 과장  
李炯學=세양유화대표(수영구·해운대구총무)  
田炳熙=광혜병원 방사선과 과장  
池文順=동래보건소 촉탁의  
崔龍雲=최용운 성형외과 원장  
許永泰=허영태 외과의원 원장  
許泰烈=신한국당 강서을지구당 위원장

洪鍾秀=SK클래선 대표  
洪鍾筆=신창실업 대표  
黃光健=황광건소아과의원 원장  
黃吉輝=황길휘소아과의원 원장  
총무단  
孫天益  
陸炳奎=동기회 운영회장(T.852-6418)  
千益住=천경주단 대표  
홍보위원회  
梁丁滿=미라보관광호텔 대표  
張壽一=신성벽화그레이프 대표  
감사  
金鍾喆=김종철세무회계 사무소 소장  
朴碩道=영도세무서 계장  
지역별총무

徐富原=한생주택부동산대표(서구·사하자구 총무)  
張基鉉=경향신문News Maker(북구·사상구·강서구 총무)  
<지구별 회장 및 총무>  
서울지구 회장·총무  
徐鍾奎=대성회계법인 대표  
金滿秀=(주)위드 대표  
울산지구 회장·총무  
楊東健=동성산업(주) 대표  
劉成龍=효문중학교 서무과장  
마산·진해지구 회장·총무  
주영덕=평화유치원 원장  
대구지구 회장  
정 흥=대구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동기회 사무실 인력처 (051)852-6418



## 지역동창회 순례

## 대전

대전지역동창회는 1백50여명의 동문이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결속과

화합을 자랑하고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공주 천안 조치원 등지에 생활근거를 둔 동문들이 각종 모임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게 되면 많게는 3백 50여명이나 된다.

1980년 3월 10여명의 동문이 쓸쓸하게 모여 창립의 희물을 밝힌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초대회장은 김찬조(3회·충남대 농대교수)이었고 강수석(11회·국방과학연구원)이 총무를 맡아 기반을 다지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그 뒤로 기라성같은 회장 총무가 대를 이으면서 현재 12대 張虎男회장(17회·과학기술연구원 교무처장)과 배성한(29회·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교수)가 쌓아올린 역사와 전통을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 대덕과학단지 주축 150여 대가족

### 공주·조치원·천안에서도 참여 계절별 정례회·등산대회 등 활발 부산고 친구들과 갖가지 친선행사

1백50여명의 동문 중 60% 가까운 동문들이 과학의 도시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와 여러 대학교에서 한국의 과학발전을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

학계에서는 김 초대회장을 비롯해 김호철(3회·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5대 회장을 역임한 윤형원(9회·충남대 총장) 등 33명이 후학지도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소에는 서연호(6회·한국

원자력발전기술원) 강 초대총무 등 83명이, 의학계에는 3대 회장 강재화(9회·강재화산부인과의원장) 「영원한 총무」 김성수(21회·김성수치과의원장) 등 10여명이 의료활동을 펴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는 배 훈동문(13회·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 등 6명이, 기업체에는 백영학(3회·충청지역정보원장)과 김동순(8회·태성상사 대표) 등 13명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특히 김호연(19회)이 대전시민 사이에 화제거리. 그는 대전백화점 영업이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실내포장마차 「오오구이」를 열고 최근 TV와 신문에 이름을 날렸다. 때문. 군에는 조배현(15회) 김문기(18회) 왕정모(26회) 등이 있다.

대전동창회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차례(3, 6, 9, 12월) 정례회를 열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는다. 정례회 때는 대전을 비롯, 공주 천안 조치원 등지 용마가족이 대거 모여 북새통을 이룬다. 또 연간 네차례 이상 「대전 소식지」를 발간한다. 용마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소식지는 95년 염명배(29회·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 총무를 맡았을 때 창刊했는데, 이젠 틀이 꽉 잡혀 있다.

특히 용마가족의 결속과 화합의 학력소가 되는 용마테니스회(회장 유재형·20회·총무 홍철희·30회) 용마산악회(회장 김찬만·20회·총무 임무택·29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 또 부산고동창회와의 합동등산대회 합동체육대회 테니스대회 등 빅3 친

## 끈끈한 情 넘쳐... 유성온천·동학사 등 명소 즐비

대전동창회는 근교에 계룡대가 있어 군에 근무하는 동문들이 자주 거쳐 가는 곳이다. 그들에 따르면 다른 지역동창회 보다 활동이 활발하고 동문간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걱정이 태산같다. 웬일인지 모임에 참석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그래서 집행부

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 풍성한 동창회모임이 되도록 지원을 짜고 있다.

대전은 유명한 유성온천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 액스포과학공원 등이 있고, 승용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대둔산 철갑산 금강 대청호 공주 부여 등 수많은 볼거리와 쉼터가 있다.

평소 이곳 동문들은 다른 지역 동문과 가족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대전지역 용마가족과 부산고 가족들이 합동등산대회(95년)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즐거운 모습(원내 장호남 회장).



## 「경남고」하면 “전통의 명문” 여전히 무려위해

## 안발인터넷

## 김성수(21회) 부회장

우리 대전권 동문들은 이곳 지역 사회가 「경남고=명문고」란 등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 특히 「대통령 동문」 덕택에 요즈음도 기는 죽지 않았다.

YS를 두고 누가 「네탓!」이라고 한단 말인가? 그렇게 잘 나가던 참모들은 낭패가 생길 때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87년 대선 당시 어느날 동창회 모임에서 일부 동문들이 동반 출마한 DJ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자 YS

는『셀데 없는 소리, 민주주의는 경쟁이야...』하며 민주화 동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리를 표시, 이상 더 말을 못하게 했다.

이곳 동문들은 요즈음 크고 작은 모임에서 만나면『외롭고 괴로운 일상에 있는 YS 곁에 그래도 선후배 동문들이 찾아들어 말벗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주고 받는다. 무척 기분 좋다. 우리 용마 파이팅!

## “실직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 뉴스메이커

## 오오구이포장마차 사장

## 김호연(19회)

「오오구이 포장마차」를 열어 고개 숙인 명퇴자들에게 재기의 복음을 전한 전국적 스타(?) 김호연(19회). 대전바닥에선 「오오구이 김사장」하면 간첩 빼고는 다 알 정도로 TV·신문 등 매스컴을 탄 행운아이다. 그래서 대전지역동창회의 용마가

죽을 대변할 정도로 유명인이 되었다. 김동문은 용마가족 일이라면 자다가도 깨어나 처리해 주는 적극파.

69년 신세계백화점 입사 이후 30년간의 유통업계 생활을 대전백화점 영업이사를 끝으로 마감했다. 요즘 유행어가 된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 명문. 궁리끝에 「오오구이 포장마차」를 대전 서구 탄방동 세반쇼핑 길건너 농협골목에 열었다. 호황을 누릴 줄은 김동문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일.

명퇴자를 비롯해 실직자 서민층 셀러리맨에 동문·가족들까지 봄벼 매일



## 재기 돋는 「마당발」 전도사

김동문은 「상호칠학」으로 △싸고

△맛있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넉넉해야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또 「5대 기본요건」으로 ①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사업 ②이웃 만나기 좋아해야 ③대전 최고의 포장마차 꿈 ④사돈과도 쉽게 소주 한 잔 ⑤수입 있어야 등을 내세우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동문은 『체면 따지면 굽어 죽기 십상입니다. 「탈(脫)체면」이 곧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이 길에 들어서면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